

2006 크리스마스 쌀 I ❤ Dokdo

“독도”를 주제로 한 이번 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제 및 도안을 공모하여 뽑힌 한진아 씨의 작품으로 10월 2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10매 1시트 3,000원)

독도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라는 2개의 섬과 주위에 있는 89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가장 동쪽의 아름다운 섬이다.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면적은 187,453m²에 달하며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73,297m², 서북쪽에 있는 서도는 88,639m²이며 나머지 섬들의 면적이 25,517m²를 차지한다.

1982년 11월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바다제비, 습새, 팽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여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 해조류번식지’로 지정되었다가, 독도의 지질적 가치, 섬 주변의 바다 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1999년 12월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강치 강치과의 바다짐승으로 한때 독도 주변으로 1만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 서식했으나 무분별한 남획으로 더이상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태평양 서남 균해에 서식한다.

팽이갈매기 전국의 해안가와 도서지방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 톱새이다. 독도는 팽이갈매기, 바다제비, 습새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해조류(海鳥類) 번식지로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갯까치수영 중부 지방 이남의 바닷가에 자라는 앵초과의 두해살이풀이다. 꽃은 5~6월에 피며, 독도에 큰 군락을 지어 왕성하게 자라는 식물 가운데 하나이다.

산호 독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산호는 부채뿔산호로써 나무나 부채모양으로 가지를 낸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독도의 부채뿔산호 군락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호붙이하이드라류 산호붙이하이드라류는 주로 수중의 바위에 단단히 붙어 고착생활을 하며, 작은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특히 독도에서 서식하는 군체의 성장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행초 남부 지방의 바닷가 모래땅에 자라는 번행초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이웃한 울릉도에는 자라지 않고 독도에만 자라므로 두 섬의 생태계가 서로 다른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해국 중부 지방 이남의 바닷가 바위 위에 자라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10월이면 독도의 바위는 온통 해국으로 뒤덮여 장관을 연출한다.

섬장대 독도와 울릉도의 바닷가 가까운 산기슭에 자라는 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이다. 세계적으로 독도와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